

# 지역 간행물 우선 구매·도서관 비치 권장

광주시 지역 출판진흥 조례 통과

### 출판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출판·교육·시민 참여 협의회 필요 실태조사·시행 규칙 마련도 중요



최근 광주시 지역 출판 진흥 조례가 통과되면서 독서 활성화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독서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책방 슝.

출판은 다양한 책을 매개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독서문화, 콘텐츠 생산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분야다. 특히 출판은 지역의 인문정신문화를 견인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작가와 학술, 편집 디자인, 인쇄, 운송, 서점 및 도서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그 파급 효과도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 출판은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보루나 다름없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견인자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출판물 비롯한 문화 콘텐츠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견인할 '광주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김나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광주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해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출판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나운 의원은 "지역의 출판문화 산업이 열약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뿐 아니라 광주가 실질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토대가 되는 출판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 규칙 마련이 중요하다. 출판인들은 지자체 가운데서도 광주보다 앞서 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부산, 대구, 제주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도서관 구입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지난 2017년 출판산업 지원센터를 연 대구시는 2019년 '지역 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산업단지, 센터 건립에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시비로 한다. 특히 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라 출판사와 서점, 시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은 언급한대로 도서관 구입비 지원 사업이다. '동네책방'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시민의 도서관 구입비 50%(지역출판사 도서는 80%)를 지원한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지역인증서점을 선정하면 시민들은 1인당 5만원까지, 대구지역 출판사 발급 도서는 최대 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출판사 대표인 정창재 전 광주문화재단장은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비를 지원해 출판사와 서점, 시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하루 속히 광주도 시행령이 마련돼 시민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출판, 문학, 서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문학 전문 출판사 '문학들'을 운영하는 송광룡 대표도 구체적인 시행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관내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일 년이면 적잖은 예산을 도서 구입비에 지출한다"며 "일정한 비율만큼 지역에서 출판된 책을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추천 도서"처럼 '지자체 추천 서점' 같은 제도를 통해 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 할인액만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면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판 진흥 조례 안착을 위해서는 출판, 도서, 교육, 학계, 시민 등을 아우르는 지역협의회 구성도 필요한 부분이다. 광주시 조례에서 명시한,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지역출판 진흥 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은 향후 독서와 서점, 콘텐츠 생산 및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광주시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어떤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지 검토, 고민 중이다. 향후 대구나 부산 등 타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검토 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우리 지역 출판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전당과 광주' 생통강좌 연다

### 광주문화도시협 다음달 2일부터



황풍년 대표

전고필 소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가 주최하는 생통강좌가 오는 11월 2일부터 11일(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까지 5·18기록관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지역문화교류후남재단(이사장 김덕진), 광주장애인문화협회(회장 정진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공동대표 임수경)가 공동 주관하며 주제는 '다시 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다.

구체적 강의를 '문화전당과 광주! 시민은 무엇을 하나?'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소장),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성주 도시문화재단CS 대표), '달라진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지역 문화기관들과 문화전당!'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이다. 11월 16일은 아시아

문화전당 투어와 담양 일원의 문화탐방이 예정돼 있다.

수강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29일까지 전화(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2만원(교재비와 답사비 포함).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월 어머니의 노래' 음반 제작 발표회

### 30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오월 어머니 40년 애환 노래로 피어나다.'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의 40년 피맺힌 삶을 노래로 기록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윤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과 함께 '오월 어머니의 노래' 음반 제작 발표회를 오는 30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오월어머니 15명이 출연해 노래하며 ACC와 민예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발표회는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ACC와 ACI가 민예총과 함께 3여 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오월어머니 15명의 삶을 구술 에세이와 시가 담긴 책자로 발간

한 바 있다. 올해는 '오월어머니의 노래' 1집 음반과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완성했다.

1집 음반엔 오월어머니의 각자의 사연을 담은 개인곡 15곡과, 오월어머니들의 합창곡 '5·18 어메' 등 모두 16곡을 수록했다. 문의 062-601-4465, 062-529-1156. /박성천 기자 skypark@

# 단계적 일상회복에 공연 등 할인권 사용 재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중단한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7개 분야 소비할인권 사용을 내달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부터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숙박 분야에선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한다. 일부 지자체와 협업체가 7만 원 초과 숙박 시 5만 원 할인권도 7만 장 배포할 예정이다. 숙박할인권은 국내 50여 개 온라인여행사(OTA)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행 분야는 투어버스 누리집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여행상품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40%를 할인해 준다.

공연 분야에선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사용하는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 네이버TV 등에서 온라인 공연 관람 시 적용한 1인당 8000원 할인권도 계속

지원한다. 대면, 온라인 공연을 통합해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2000 원(1인당 4매)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선 203만 명에게 6000원 할인권(주당 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 전국 521개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람권 가격의 40%(최대 3000 원, 1인당 10매)를 지원한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4곳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최대 5000원(예매처별 1인당 4매, 카카오톡채널 1인당 6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을 제외한 소비할인권은 내달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내달 중순부터 분야별 주관기관과 참여 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가을 끝자락 감미로운 클라리넷 선율 감상하다

### 조인혁·박경옥·박진우 출연

### 2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가을의 끝자락, 감미로운 클라리넷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과 첼리스트 박경옥, 피아니스트 박진우로 구성된 '클라리넷 트리오'의 '가을 여정'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들이 들려줄 곡은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

번', 가브리엘 포레의 '클라리넷 트리오 in d minor',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in a minor' 등이다.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한국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종신수석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첼리스트 박경옥은 브람스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피아니스트 박진우는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3만원,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2-6303-72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인혁(왼쪽부터), 박경옥, 박진우로 구성된 '클라리넷 트리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